

2020 AL.F.F
팀작 뮤비팀 시나리오

언젠가 너와 나

노래 : 윤지영, 카더가든

작가 : 임세린

제작 : 김민주 김시우 박노현 박지민 심현왕 유서영 이도연 이수민
이지원 임세린 전상우 주영지 최우석 한정원 한지민 황지유

노래 제목

언젠가 너와 나 - 윤지영, 카더가든

노래 장르

발라드

뮤비 종류

스토리 뮤비

기획의도 및 주제

“사랑해서 사랑을 그만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곡은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도 이해할 수 있었던 노래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것과의 영원을 장담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게 어떤 이유가 되었든 멀리 떠나야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지켜주고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사람들을 그려볼까 싶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일이든 꿈이든, 사랑함에도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섞여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문장의 끝에 심표를 찍을까요, 마침표를 찍을까요.

등장인물

A (여자주인공)

무언가를 사랑하지만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와 정리하는 A. 그 과정에서 추억을 회상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또 다시 고민하기도 한다. 씁쓸하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했던 대상이 연인인지, 꿈인지, 물건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 감정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누구의 이야기도 될 수 있기에 이름은 설정하지 않았다.

시나리오

#1 intro

야외		(노래 시작 전)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고 이를 쳐다보는 여자의 뒷모습. <i>배경은 아웃포커스, 노래 시작 (voice over) "나 이제 그만하려고"</i>
여자의 집, 주방		(노래 시작 전)	“그게 나올 것 같아” 주방 냉장고 문을 열고 사과를 꺼내 싱크대에서 씻어 드는 여자.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에 전화하는 듯하다. 주방에 편히 서서 물기를 탁탁 털어 한 입 크게 베어 문다. “야 뭐든지 결국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뭐하러 그렇게까지 아등바등 그러냐?” “어어~ 야 나 누구 전화오는 것 같은데? 어 다음에 또 전화할게 울지 말고” 전화 수신 화면을 보고 전화를 받지 않고 한참을 쳐다보다 과일을 한 입 베어문다. <i>전화 수신 화면 클로즈업X, 풀 샷으로 잡기</i>
여자의 집, 거실		(간주)	그러고는 전화를 내려놓는 A.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한다. 캐리어 샷 버드아이로, 빈 캐리어에 옷 무더기를 툭 내려놓는 화면. 툭 내려놓으면서 노래 간주가 시작. <i>박자가 넘어가고 화면 전환 짐을 싸는 A의 얼굴 E.C.U</i>

#2 도입 (1절)

집		언젠가 너와 나 중에	침대에 멍을 때리는 여자. 빈 침대를 먼저 찍은 뒤 그 위로 힘없이 눕는 여자.
-		누굴 선택해야 한다면	(집) 짐을 싸면서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본다. 큰 창을 바라보는 뒷모습을 이어지게 찍고 싶음. 방안에서 뒷모습, 바깥에서 창에 비친 여자의 앞모

			습 교차.
야외		나는 너를 고르고 멀리	(야외) 한 손에 카메라를 하나 들고 설정 버튼을 돌리는 손 클로즈업
-		떠날래	사진을 찍으러 걸어가는 A
집		그런 나를 이해해줄까	캐리어에 짐을 싸는 A
-		딱히 도망가는 건 아닌데	캐리어-옆모습 웨이스트 사선-얼굴 클로즈업 옆모습-뒷모습 웨이스트 정면 순서대로 씬 교차
-		그런 나라고 기억해도 돼	
야외		사랑했던 건 다시 못 보겠지 만	뒤를 돌아보는 A / A의 시점 / 카메라를 들고 뷰파인더에 눈을 가져다대는 A / A의 시점 씬 교차
-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거야	카메라 속 사진을 보면서 / 웃는 A 길게
집		내 마음을 모두 다 말해 줄 순 없나봐	상자를 열어 옷을 꺼내는 A.
-		오래 기억될 무얼 남겨줄게	공허한 느낌의 표정, 거울을 보고 옷을 입는 A.
집, 야외		(간주)	(집) 여자는 방에서 혼자 천천히 춤을 추기도 하고 좋아하던 노래도 들어본다. (야외) 밖에서 카메라 들고 돌면서 걸어 다니는 A. 둘 다 슬로우모션으로 같은 동작 교차 / 분할
야외		언젠가 너와 나 중에	차가 도로에서 멀어지는 샷 (카메라를 바닥에 두고)
-		누가 멈춰서야 한다면	차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는 A

			(만약, 차를 구하지 못 한다면 버스 or 자전거)
-		나는 잡은 손을 놓고선 숨을 래	닫히는 차 문, 걸어가는 A, 주변 풍경 교차 (바다에 온 것을 보여줌)
집		그런 내가 미워 보일까	계속 춤을 추는 A.
-		미안한 맘이 없진 않는데	손이 등장을 해서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줍는다. 사진 들을 꺼내보고 추억을 회상한다.
-		그냥 그런 나라고 기억해도 돼	사진을 책에 끼우고 덮어 책장에 책을 꽂는 A. (책 제목 중요)
야외		사랑했던 건 다시 못 보겠지 만	해변가를 걷는 A. 손으로 눈앞을 가려보고, 카메라 모양을 만들어보기도 한다. (카메라 구도 잡듯이)
-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거야	바다를 쳐다보는 A. 눈물을 참는 듯 표정을 짓는다.
집		내 마음을 모두 다 말해 줄 순 없나 봐	큰 창 앞에서 밖을 바라보는 A. 창 밖에서 여자를 찍는 씬과 교차.
-		오래 기억될 무얼 남겨줄게	사진들을 짐 위에 올리고 펼쳐놓는다. 짐을 다 싣 듯 캐리어를 닫는 A.
야외		(노래 퓌)	파도소리, 모래 밟는 소리, 카메라를 만지는 소리가 들린다. 한 손에는 벗은 신발을 들고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든 A를 멀리서 아주 풀샷으로 왼쪽으로 치우치게 촬영. 오른쪽에서 또 다른 한 명이 뛰어오다가 여자를 보고 멈춘다. 무릎에 손을 올리고 숨을 가쁘게 쉰다. 서로를 쳐다보고 A는 주저앉아 고개를 보며 얼굴을 손으로 숨긴다. -> Black out(노래 간주 다시 재생) 검은 화면위 가운데에 노래제목&엔딩크레딧. -> 가사를 더 드러내는 장면 클로즈업 씬 위에 엔딩크레딧을 넣어도 좋을 듯